

1분기 추진과제 24개 완료... 목표대비 100% 달성

국민연금, 'NPS 쇄신추진위원회' 열고 쇄신대책 추진상황 점검결과 발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22일 개최한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NPS 쇄신추진위원회' (이하 쇄신추진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쇄신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의 쇄신추진위원회는 쇄신 대책의 총괄적인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한 비상설기구로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원과 부서장급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3대 분야 60개 과제로 구성된 쇄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고의 직업윤리를 갖춘 글로벌 인재들이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연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쇄신추진위원회의 1분기 추진상황 점검 결과, 현재까지 24개 과제를 완료(1분기 목표대비 100% 달성)했으며 금년 상반기 중 대부분의 과제를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쇄신과제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공단은 국민이 맡긴 소중한 자산을 최고의 직업윤리를 갖추고 성실히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직 채용 과정에 전문업체에 의한 엄격한 평판 조사를 도입하고, 기금운용직 근무평정 시 공정기강 관련 항목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규정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준법지원실이 기금운용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했으며, 제도 및 기관운영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이 인사혁신실과 감사실로 분산돼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준법지원실은 국내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선정 및 관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기금운용 행위점검 범위를 확대했고, 제도 분야는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윤리경영 전담부서(윤리경영부)를 신설해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다중점검체계를 확립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중대 비위와 사건·사고에 대한 강력한 징계방안 및 예방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시기에, 기관 내 공직기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3단계(관심·주의·심각)로 공직기강 주의보가 발령된다.

앞서 공단은 지난 1월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과 부서가 6대 비위행위 시 엄중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청렴서약서'를 순선수발하여 작성·제출해 윤리경영의 의지를 다졌다.

김용진 이사장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재차 강조하며, "쇄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쇄신과제 이행상황 점검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올해 청년친화 일자리 매칭 참여기업 모집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도내 중소·중견기업과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1년 청년친화 일자리 매칭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청년친화 일자리 매칭사업은 코로나 19로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하는 취업희망 청년의 취업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업합동설명회, 멘토링 등을 통한 기업-청년 간 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도내 우수기업들이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의 기회가 될 지원사업이다.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기업 모집기간은 4월 16일까지다. 경진원은 서류 제출 이후 적격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매칭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추후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 연계로 이어질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 도구 새로 개발

농진청, 17종 1만8000점 농촌진흥기관 통해 전국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바이러스로 인한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용 바이러스 진단 도구(진단키트) 17종, 1만8,000 점을 농촌진흥기관을 통해 전국에 보급한다.

바이러스 진단 도구는 농업 현장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 건전한 식물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됐다. 바이러스 진단 도구에 식물체 잎을 으갠 뒤 액액을 떨어뜨리면 2분 안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총 10개 작물(수박, 오이, 멜론, 호박, 참외, 고추, 토마토, 가지, 상추, 배추)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17종을 진단할 수 있다.

농진청은 24일 각 도 농업기술원 등이 참여하는 바이러스 진단 도구 활용법 교육을 비대면(화상 워크숍)으로 실시한 뒤 진단 도구를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는 4월 중순 이후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도 농업기술원에 문의, 바이러스 진단 도구를 받을 수 있다.

농진청은 2007년부터 해마다 바이러스 진단 도구를 보급 중이다. 올해 보급 물량에는 지난해 개발한 박과진딧물매개화바이러스 진단 도구와 고추 4종 바이러스 다중 진단 도구를 추가했다.

진딧물이 옮기는 박과진딧물매개화바이러스는 멜론, 오이, 수박 등 박과작물 잎을 노랗게 만든다. 특히 멜론은 과실 넷트(그물무늬)가 형성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생기는 피해가 발생한다. 한 번 발생하면 확산하기 쉽고 일반 생리장애와 증상이 비슷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고추 다중 진단 도구는 바이러스 4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고추에서 문제가 되는 토마토반점위조 바이러스,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고추모블바이러스, 고추약한모블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준원 원예특작환경과장은 "최근 기후 변화, 농산물 교역 증가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며 "앞으로 채소 외에 화훼, 약용작물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빠르게 보급해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만경강 취수 공업용수, 용담댐으로 변경해야”

2021년 제1차 전복물포럼

댐 용수 공급 확대 방안 주제로 용담댐 고시량 135만톤 이용 위해

전북도가 지역의 물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연구원(원장 이영민)에서 '전복물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복물포럼 공동대표 전북도의회 이영민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전문가, 수자원공사, 유역물관리위원 등 최소인원(20여명)만 참석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전복물에 용담댐 고시량 135만톤을 계획대로 이용하기 위해 '댐 용수 공급 확대 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공동대표 이영민 의원은 "다 지역의 경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공업용수가 부족해 기업 유치에 발목 잡히는 사례도 있다"고 하면서 "용담댐은 전복의 미래인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용수 활용 방안과 대응 논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용담댐에서 도내에 공급되는 생활용수 이용량은 1일 평균 50만톤 수준이나, 향후 차질없는 세만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135만톤이 유지돼야 한다.

이날 포럼에는 이에 대한 추가공급 방안들이 제시됐다. 전북연구원 김보국 박사는 "만경강에서 직접 취수하는 공업용수 21만톤과 대간선수로 농업용수를 취수에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익산시 등의 10만톤을 용담댐으로 취수원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취수원 변경 시 만경강의 수질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6~10% 수질개선 효과도 제시했다.

전북대 박영기 교수는 "용담댐 탄력 운영을 통해 총량권으로 추가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유량을 자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용담댐에서 공급이 가능한 만경강 공업용수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금강하구에서 세만금과 군산산단으로 공급하는 공업용수 30만톤도 장기적으로는 용담댐에서 직접 공급함이 타당하며, 행정과 정치권이 공조해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하이트진로, 소방청과 비대면 체육대회 개최

하이트진로가 임직원과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챙기기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소방청과 함께 비대면 체육대회 '2021 더 히어로 레이스(2021 the Hero's Race)'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이진로 임직원과 전국 소방공무원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2일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회를 맞은 '2021 더 히어로 레이스'는 참여자들의 일상 속 지속적인 체력 증진을 도모,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구성원간의 단합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록, 평가하는 비대면 체력 증진 대회임을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2020년 정부의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방공무원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7개 종목만 선별해 참가자들의 종목별 참여도를 높였다.

개인별, 팀별 경쟁을 기반으로 한 ▲걷기 ▲달리기 ▲등산 ▲사이클 등 6개 종목과 비경쟁종목인 ▲일일걷기 1만보 성실도가 있다. GPS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운동량을 측정하며, 두달간의 기록을 합산해 6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이번 체육대회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시는 소방관들과 하이진로 임직원들의 일상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하이진로는 앞으로도 소방 기관 근무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개편된 주52시간제 유튜브 방송으로

내일 중기중앙회·노동부·IBK기업은행 공동 설명회

중소기업중앙회·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이 손을 잡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 내용과 노무관리 핵심 사항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26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4월 6일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개편 등 주52시간제 보완입법의 시행을 앞두고 그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오랜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부터 주52시간제를 도입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을 확대해 가고 있다.

한편,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입법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금년 4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개편을 통해 현장의 유연성을 높이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임금에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보완입법은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신설 및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분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3개월) ▲3~6개월 단근 또는 1개월 초과 선근 활용 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부여, 3~6개월 단근 도입 시 임금보전방안 마련·신고, 1개월 초과 선근 도입 시 매 1개월마다 가산수당 정산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의무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와 같은 근로시간 관련 제도 변화를 정확히 안내하는 한편 기업이 알아야 할 노무관리 핵심 사항도 설명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와 IBK기업은행에서는 고객사나 회원사에 대해 노무관리 지원을 꾸준히 해 왔는데, 이번에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안내한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대동맥 판막 삽입술 50례 달성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심장내과 이상록 교수팀이 가슴 절개 없이 대동맥판막 협착증을 치료하는 '경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 50례를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경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은 심장을 절개하지 않고 대퇴부(허벅지) 동맥을 따라 스텐트와 유사한 대동맥판막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고령으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사용된다.

이상록 교수팀은 최근 박승협씨와 김귀녀씨의 대동맥판막 협착증 치료를 위해 가슴을 여는 수술대신 경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을 시행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전북대병원 심장내과 이상록 교수는 "경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은 개흉 수술에 따른 위험은 물론 수술을 꺼리는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심장 질환으로 고통 받는 고령 환자들의 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개정 건산법, 상호시장 개방 전문건설업계에 불리 작용”

등록기준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종합공사 수주 거의 못해 전건협 전북도회 “부대공사 개념 반영 요구 공중 최소화해야”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구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 법제정 취지와 달리 전문건설업체에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존에는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된다.

개정된 건산법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개정법이 적용·시행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들도 종합공사 수주는 가능해졌다. 하지만,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은 등록기준 등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종합공사 수주를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진행하는 발주자의 건산법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해 업역구제 폐지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공정한 경쟁으로 건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법 개정 취지는 사라지고 기존 시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산혁신의 주체여야 할 일선 공공발주자들이 '부대공사'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은 채 공

사업할을 진행하고 있어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입찰참여를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전문공사에는 종합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로 전문공사만 극한의 경쟁으로 빠뜨린 점이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 각 시·군에 전문건설공사 발주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입찰공고를 모니터링해 부당사례 발생 시 즉각적으로 정정요청 및 건의를 하는 등 전문건설업체 보호 및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회 T/F팀은 지난 8일 완주군을 시작으로 23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각 시·군 업무담당자들과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및 국토관리사무소, 교육지원청 등 34개 발주기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상호시장 진출 관련 전문건설공사 발주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건의문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은 중

합공사로의 진출은 등록기준 충족 및 다수업종 보유 등 현실적으로 극히 소수의 전문건설업체에만 참여 가능하고, 이와 반대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진출은 수월하기 때문에 과당간 경쟁으로 수주영역이 좁아진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건산법 상 '부대공사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사 발주 시 전문공사로의 발주를 적극 검토해 줄 것과 종합공사 발주 시 요구 공중을 최소화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현실적으로 가능케 해달라'고 건의했다.

전북도의 김태경 회장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업체 기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명기된 '부대공사'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보다 많은 공사가 전문공사로 발주가 가능하며, 3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50%가 넘는 공중이 주된 공사이므로 반드시 해당 공중의 전문공사로 발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공사 발주 시에도 '부대공사'의 개념을 명확히 반영해서 요구 공중을 최소화해야 전문건설업체도 참여가 가능해진다"고 부연했다.

또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을 보호·육성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미련에 노력해달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해오던 전문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과 현장경험, 공사품질 등을 믿고 전문건설업역 보호 및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